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3월 15일(주일) 제1286호

고난을 변화의 기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만했고 탐욕에 치우쳤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유화하고 겉손으로 종 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가치를 추구해 섬김의 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웃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

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영적인 수술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재앙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려는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생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때만 우리는 호흡할 수 있으며 진정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속히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소서. 치료 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많은 환우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 간호진, 구호팀들에 힘을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능히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확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저질환자들의 생명도 지켜주소서.

한국 교회 공예배와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한국 교회를 무

너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사이비들의 거짓 정체가 낱알이 드러나게 하셔서 한국 사회가 정결해지게 하소서.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기에 더욱 어려움 속에 있는 장애인들과 독거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이재훈 담임목사

* 이 기도문은 2020년 3월 11일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안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월 25일(화)부터 3월 22일(주일)까지 국내 전 캠퍼스의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하고
각자의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 위 기간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https://www.cgntv.net>
2. 개인영성을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기도 마리아행전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3. 3월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공동체별로 공지됩니다.
4.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차세대 전용채널: <https://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5.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 오전 11:30, 주일 오후 2:00, 주일 오후 4:00, 주일 오후 5:30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대학청년 전용채널
<https://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영어예배 오전 11:00, 오후 4:00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스페인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오후 2:00

3월 비전헌금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기부

교단총회에도 대구경북 미자립교회 위해 5천만 원 기부



온누리교회가 3월 비전헌금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극복하는데 써달라며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중앙회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잠실교회, 주안장로교회와 함께 동참했다. 5개 교회가 기부한 이웃사랑 성금은 총 5억5천만 원이다. 이웃사랑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웃사랑 성금은 지난 13일(금) 이재훈 목사,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림형전 목사

(잠실교회),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등 5개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사랑의열매 예종석 중앙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온누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사무실에서 대구경북지역 피해구호지원 지정기탁금을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잠실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주안교회, 창동염광교회가 함께 3억원을 기부했다. 대구경북 지역 4개 노회의 미자립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3월 비전헌금 중에서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과의 싸움은 분명 영적인 싸움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가 영상예배로 대체된 것은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충격적인 공격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 성경을 거치되게 해석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한 이단사이비가 있다는 것 또한 영적 싸움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의 성패,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제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를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제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건널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끊어지기에 내가 지쳐 버렸다”(사 1:11~14).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전쟁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전쟁의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은 죄와 흑암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끄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광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죄와 유혹과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시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이후 처음으로 공격을 받아 싸워야 하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고 방해한 세력을 의미한다면, 아말렉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시련은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 원망, 불신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외적인 공격, 물리적인 공격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나 싸우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 안에서 싸우는 성령님의 전쟁’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사태를 지나면서 외적인 전염병과 싸우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싸우는 성령님의 전쟁을 믿음으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발해서 나가 싸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네 사람의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은 전쟁터로 가고, 세 사람은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산으로 가고, 세 사람이 전쟁터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언덕에 올라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기 힘들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전쟁입니다. 승패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영향력,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하는 옛 성품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 성품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 이러스보다 무서운 전염력이 죄의 전염력입니다. 죄의 전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전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탄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네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네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네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쳐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신 25:17~18).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되는 죄는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 사울이 버림을 받았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전염병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아말렉을 이긴 모세의 비결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행복의 표현입니다. 간절한 매달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그 기도의 손은 하나님 보좌까지 닿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터 백성들에게까지 닿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중요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닮은 사람으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15~16절).

‘여호와 닮은’은 ‘여호와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전쟁을 통해 배운 결론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깃발이 중요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깃발을 들고, 바라보고, 깃발을 향해 모이고, 깃발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깃발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 깃발이 계속 휘날리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깃발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사 11:10).

‘이새의 뿌리’는 곧 다윗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곧 깃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회개하며 자신 안에 있는 아말렉을 싸워 이길 때 전염병과의 싸움이 속히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크리스천은 동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답: “동거는 관계에서 오는 혜택은 누리면서 그 관계를 통해 나의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어서 하는 선택이 동거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금방 포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문제없는 삶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성숙을 향해 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동거에 대한 인식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18년에는 56.4%로 절반을 넘어섰다. 동거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아진 것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결혼에 대한 포기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거는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다.

첫째, 동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 됨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결혼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맺는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 됨의 언약이며, 성경은 부

부의 하나 됨을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창 2:24). 성경에서 부부의 하나 됨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의 하나 됨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신비이다(엡 5:31~32). 동거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타협안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을 통한 이익은 얻으면서도 그에 따른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만둘 수 있도록 최소한의 헌신만하겠다는 선택이다. 그러므로 동거의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하나 됨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

둘째, 동거를 통해서는 결혼한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결혼한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다. 부부 사이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나 동거는 그렇지 않다.

동거는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에 있다. 그러므로 동거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는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그 관계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동거는 그 시작이 인간의 편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출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명의 잉태는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이 되고 혹시 자녀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셋째, 동거를 통해서는 결혼한 가정을 통해 주시는 영적 성숙의 과정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결혼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도 하다. 결혼은 쉽지 않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사람이 삐걱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서로의 연합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이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변화와 성숙을 경험한다. 그러나 동거는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어서 하는 선택이 동거

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금방 포기한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문제없는 삶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성숙을 향해 가는 여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꺾는 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한 행복을 향한 과정이다.

그러나 동거에서는 이러한 내면적 성숙에서 오는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이익이 되어 보이는 것이 영원히 유익이 아니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동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전한 가정을 향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부모, 자녀, 교회가 삼박자를 이루는 신앙교육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가 남긴 말이다. 요즘 아이들도 존 웨슬리처럼 부모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고 있을까?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주중 1시간에 자녀의 거의 모든 신앙교육을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중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7시간 동안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자녀의 신앙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모범적으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뤄지고, 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앙교육과 결합되어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그 맥락을 같이할수록 효과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책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의 저자 신형섭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충신교회)는 “부모세대가 일어나 교회와 연합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에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한 신앙교육 매뉴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 교회의 숙제가 되어버린 가정예배, 부모의 역할을 키우지 않고 정보만 제공하는 가정사역, 따로 도는 부모와 자녀의 신앙교육 등 다양한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선수가 되고, 교회는 부모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교회의 교구편성도 지역이 아니라 자녀들의 연령별로 나뉘도록 한다고 제시한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가정예배다. 신형섭 교수는 가정예배야말로 주일과 주중,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자녀, 교회가 삼박자를 이루는 신앙교육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빛을 전하는 가정

본문: 다니엘 1장 8절, 15~17절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메시지

다니엘이 처한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눠봅니다.

첫째, 이방풍습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가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학문을 배

우게 됩니다. 포로이기에 이름을 거부할 수 없었고, 학문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을 본받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경건과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식사를 거부

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이 지났지만 그들의 얼굴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혜와 총명이 모든 지역에 사는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열 배나 뛰어났습니다. 바벨론 숫자에서 열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지혜가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조국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은 어두운 현

실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모든 가정이 다니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가정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시대 다니엘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 문영재 목사

*오늘(3월 15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